

## 스피노자의 사회정치론\*

박삼열 (숭실대학교 교수 / 철학)

### I. 시작하는 말

### II.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의 필요성

1. 엄격한 결정론과 자유의지
2. 인식의 단계와 자유인
3.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의 필요성

### III. 종교와 정치의 분리

1. 사회정치적 배경
2. 종교와 정치의 분리

### IV. 정치체제

1. 군주제
2. 귀족제
3. 민주제

### V. 맺는 말

---

\* 이 논문은 2006년도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In this essay, I investigated the reason why Spinoza needs political philosophy in spite of his hard determinism. Afterwards, I researched his view of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and also his argument about monarchies, aristocracies, and democracies in forms of government in the *Political Treatise*.

In general, most people can only achieve the first kind of knowledge. They are unable to gain the highest happiness which Spinoza suggests in the *Ethics*, since they are unable to have an adequate idea. In order to make people saved from the fright and thus pursuing happiness, Spinoza tries to seek the best policies and systems of government such as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The analysis and demonstration of appropriat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for each form of government is the main task of the *Political Treatise*. For Spinoza himself, the purpose of state is to offer people a real freedom. He believed that democracy is the most natural form of government which guarantees freedom and equality. Thus, in the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he strongly suggested that democracy is the best format of which a government can pursue.

**Keywords:** Spinoza, politics, state, monarchy, aristocracy, democracy

---

## I. 시작하는 말<sup>1)</sup>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국가가 전제정치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철저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근본과제로 삼고 있다. 『신학정치론』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였으나, 『정치론』에서는 자유와 더불어 평화와 안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국가의 제도를 제정하는 데 이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명예심, 이기심 등의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도 고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정부의 형태에 대한 스피노자의 사상은 『신학정치론』에서는 단지 지적만 되었으며, 『정치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학정치론』에서는 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해서 역설하였고, 『정치론』에서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는 군주제와 귀족제에 관해서는

1) 본 논문에서 『윤리학』, 『신학정치론』, 『정치론』은 다음과 같은 약자들로 인용한다.

『윤리학』 E = the *Ethics* ; A = axiom ; P = proposition ; D = definition ; Dem = the demonstration of the proposition ; C = corollary ; S = scholium ; Post = postulate ; L = lemma ; Exp = explanation ; Pref = Preface ; App = Appendix. 예를 들어 ‘EID1’은 ‘1부 정의 1’, ‘EIIIP13S’는 ‘2부 정리 13의 주해’, ‘EIIIP31Dem’는 ‘2부 정리 31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신학정치론』 TPT =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 chap. = chapter. 예를 들어 TPT, chap. 16.은 『신학정치론』 16장을 의미한다.

『정치론』 PT = *Political Treatise* ; chap. = chapter ; par. = paragraph. 예를 들어 PT, chap. 4, par. 6은 『정치론』 4장 6절을 의미한다.

2) 엘리슨은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이 그 형태나, 내용, 전개방식 등은 다르지만, 두 저작은 국가의 평화와 자유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Henry E. Allison, *Benedict de Spinoza: An Introduc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7), 176쪽.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민주제를 서술하는 도중에 절필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말하고자 하였던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본론을 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정치’는 발리바르가 지적하듯이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sup>3)</sup> 스피노자 철학의 목표는 인간의 최고 행복이었고, 『윤리학』에서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미 제시하였다. 그 길을 따라 최고 행복에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는 스피노자에게 정치제도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에게 세계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제안 역시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이라는 뛰어난 저작을 남겼다. 두 저작은 근대 국가론의 고전적 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피노자는 탁월한 국가학자이자 근대 국가론의 아버지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철학 체계를 완성한 『윤리학』이외에 두 권의 정치철학 저작을 집필한 이유, 즉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철학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이다. 그런 다음 『신학정치론』에서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치론』에 기술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을 차례로 살펴 볼 것이다. 스피노자의 사회정치론은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서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60년대부터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스피노자 르네상스도 사실상 그의 사회정치론에 대한 연구를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피노자의 사회정치론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

3)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5), 9쪽.

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스피노자의 사회정치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소개함으로써 『윤리학』에 집중된 관심을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으로 확대시키는 데 있다.

## II.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세계관 즉 기계론적 결정론은 정치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자유인과 최고행복을 지향하는 그의 윤리학은 정치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럼 결정론과 자유인에 대한 스피노자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엄격한 결정론과 자유의지

스피노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 즉 우주의 법칙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엄격한 결정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체와 속성과 양태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들이 이루는 자연 전체는 필연적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기계론적 체계로서 아주 잘 짜인 계획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론에 의해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밖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자신의 능력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자연 안의 인간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존재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왕국 안에 또 다른 왕국을 만든 것처럼 부조리하다. 자연의 법칙과 규칙은 항상 동일하고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sup>4)</sup>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착각은 인간이 자기의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가 던져서 날아가고 있는 돌이 자신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원인인 내가 던져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날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돌을 조롱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돌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더 나아가 자연의 필연적 인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유의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 2. 인식의 단계와 자유인

스피노자는 인식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 번째 인식은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두 번째 인식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고, 세 번째 인식은 직관에 의한 지식이다.<sup>5)</sup>

1종지(상상력에 의한 인식) : 상상에 의한 인식은 우리들이 경험한 세계와 모순되는 다른 세계를 지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는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막연한 경험에 의해 미래에 죽을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4) EIIIPref.

5) EIIP40S2.

이는 것이다. 또한 막연한 경험과 관찰에 의해 우리는 기름은 불꽃을 내기에 알맞은 것이고, 물은 불꽃을 끄기에 알맞은 것임을 안다. 스피노자에게 첫 번째 인식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에 다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2종지(이성에 의한 인식) : 두 번째 인식인 ‘이성에 의한 인식’의 예를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상들의 어떤 공통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시력의 본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시력에는 동일물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까이 볼 때 보다 작게 보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태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거나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성에 의한 인식은 다름 아닌 과학적 인식의 단계이다. 이 인식은 무수한 법칙과 무수한 연결고리의 관계들을 끝까지 추구하고 밝혀낸다는 점에서 첫 번째 단계의 인식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러나 이 인식은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세 번째 종류의 인식만이 수행할 수 있다.

3종지(직관에 의한 인식) : 스피노자는 세 번째 인식인 직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분 A가 선분 C와 평행이고, 선분 B가 선분 C와 평행이면 선분 A와 선분 B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에 의해 안다. 그리고 2에 대한 3의 관계처럼 4에 관계되는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직관으로 6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직관은 어떠한 추론과정을 거치고 않고 한 번에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직관에 의한 인식을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대한 인식에 적용시킨다. 즉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는 인간 이성에 근거한 인식을 통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은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에 예속되어 있다. 이 예속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목표이다. 그는 여러 종류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의 여러 단계와 병행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기적인 정념으로서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 즉 관용으로서의 사랑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1종지)과 적합한 인식(2, 3종지)을 구분하고, 이성에 의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관용으로서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스피노자의 신에 관한 지적인 사랑은 인식론에서의 세 번째 인식, 즉 직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랑이다. 이것은 사물들을 통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직관에 의해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인식은 두 번째 인식인 이성에 의한 인식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 “우리가 한층 더 많은 사물을 인식함에 따라서 그만큼 더 신을 인식한다”<sup>6)</sup>라는 스피노자의 진술은 두 번째 지식을 통해 세 번째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언급하고 있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세 번째 인식은 인간 최고의 인식이고, 따라서 최고의 덕이다<sup>7)</sup>.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정념의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동요되지 않고 정신의 평정을 누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 있다.<sup>8)</sup> 현자는 정신이 거의 동요되지 않고, 자기 자신, 신 및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하여 의식하고, 결코 존재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항상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하고 있다<sup>9)</sup>. 이렇게 인간의

6) EVP24.

7) EVP25.

8) EVP38.

최고 행복은 이 세계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이루어진다.

### 3.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의 필요성

위에서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에서 엄격한 결정론을 주장한다. 이 세계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없다. 따라서 인간이 바람직한 정치체도를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는 인간이 최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윤리학』에서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 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식에 도달해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함으로써 감정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유인에게는 어떤 정치체제이든 중요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길에도 어떤 정치체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 행복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한 스피노자에게 ‘정치’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생애 말년에 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작업에 착수하였을까?

필자는 그 이유가 『윤리학』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제시한 최고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3종지인 적합한 인식을 통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스피노자도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윤리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최고 행복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그것이 손 앞에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9) EVP42.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이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자신이 제시한 최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심히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발견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드문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문 동시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문장으로 『윤리학』을 끝맺고 있다. 결국 3종지를 통한 최고 행복의 획득은 사실상 아주 소수의 지적인 엘리트들에게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그의 『윤리학』은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주의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스피노자는 종교를 통해 최고 행복에 이르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윤리학』 5부 정리 16에서 20까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신에 대한 사랑’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 ‘신에 대한 상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피노자는 신앙, 즉 신에 대한 사랑으로 얻게 되는 종교적인 마음의 평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는 (그들이 인식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종교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 역시 정념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sup>10)</sup> 이렇게 이성적인 능력과 관계없는 일반 대중들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종교를 통해 진정한 자유인의 경지에 도달한 경우도 그리 흔치 않다.<sup>12)</sup> 또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최

10) 예를 들어 스피노자는 하숙을 할 때, 그의 집주인 부부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을 권유했다.

11) 다만 일반 대중의 신앙과는 달리 신학자나 철학자는 인식에 근거해서 신에 대한 지성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이 지적인 사랑 (또는 상상적 사랑)의 결과로 생긴 기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12) 테레사 수녀, 디트리히 본헤퍼,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고 행복에 이르는 길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인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지, 즉 부적합한 인식의 단계에서 정념의 노예로서 살아간다. 스크러턴이 지적 하듯이, 대중들은 자유인으로 살지 않으며, 인식을 통해서 오는 은총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사회 속에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고,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한 규칙과 원칙들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치’가 스피노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sup>13)</sup> 이처럼 스피노자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의 의미와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가능한 통치형태에 관한 구상을 내어 놓았다.<sup>14)</sup>

스피노자에 의하면 대중들은 상상력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욕구가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평화와 안전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라고 말한다.<sup>15)</sup>

『윤리학』에서 제시한 자유인의 길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반 대중들을 위해 스피노자는 그들을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직한 국가체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이다. 따라서 『윤리학』이 지적 엘리트들을 위한 책이라면,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은 1종지의 혼동된 인식 속

13) Roger Scruton, *Spinoza*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91쪽.

14) 강영안, 『자연과 자유사이』 (서울: 문예출판사, 2001), 36쪽.

15) 또한 그들은 세계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의지에 대한 착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했다고 믿는다.

에 있는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종교와 정치의 분리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치의 필요성은 명백해졌다. 1종지의 혼동된 인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제시한 자유인이 되는 길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길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1종지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국가 체제 중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사회정치적 배경

스피노자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정치적·종교적 파벌이 심한 상태였다. 지방분권과 종교의 자유 정책을 선호하는 상인계급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화당 정권은 공화제를 군주제로 바꾸려는 왕정당과 맞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각각의 정당이 같은 이념을 가진 종교단체들과 연합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개혁과 교회를 지지했고, 왕정주의자들은 정통적인 성격을 지닌 반개혁과 교회와 손잡았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네덜란드의 상황을 정치적, 종교적 편협과 어지러움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을 정치 정당과 종교적 파벌들과의 연합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종교가 어떤 정당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들이 종교단체들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피노자에게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스피노자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간섭이 철학과 과학 등의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자유와 지적인 자유를 위해서 정치가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것과 이로 인한 철학적 탐구의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우리는 흔히 스피노자가 그의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결별해서 살았다고 알고 있다. 물론 그는 생애 전반에 걸쳐 철학적인 탐구에 종사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네덜란드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하였다. 그는 공화정치의 지도자인 디 위트(de Witt) 형제들의 살해에 항의했고, 네덜란드에 군대를 들여온 프랑스 장군을 방문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활동했다. 1663년 이후 스피노자는 라인스부르흐를 떠나 헤이그 근처의 포오르부르흐로 주거를 옮겼으며, 거기서 당시 공화당의 여러 정치가들과 교우하면서 점차 종교철학으로부터 정치철학으로 그 관심을 옮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670년에는 그의 정치철학의 역작인 『신학정치론』을 저술하여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였다. 그러나 『신학정치론』을 출판한 이후, 스피노자는 칼빈주의 정통파들이 우세하였던 네덜란드에서 무신론자 또는 반종교인으로 낙인이 찍혀 공공연히 공격을 받았으며, 마침내 그의 모든 저서들의 출판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 2. 종교와 정치의 분리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은 그의 다른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스피노자 당시에는 ‘위험하고 천박한 책’, ‘가장 유해한 책’,

‘불경스럽고 신을 모독하는 책’, ‘잔인한 책’, ‘극악무도한 책’,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파렴치한 책’, ‘마키아벨리주의적 책’, ‘반유대적인 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이 저작은 많은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 왔다. ‘선구적인 책’이라는 찬사와 함께 ‘혁명적’, ‘민주적’, ‘진취적’인 책이며, 여태까지 이러한 걸작이 소홀히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6)</sup>

『신학정치론』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장부터 15장까지 신앙과 학문의 분리, 성서해석 등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논의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오늘날 『신학정치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1장-15장에 걸친 그의 논리적인 성서 해석 때문이기도 하지만, 16장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 때문이다. 스미스는 『신학정치론』 16장에서 스피노자가 루소보다 1세기 앞서 민주주의를 자연법과 인간 자유에 가장 일치하는 정부 형태로 채택했다고 말한다.<sup>17)</sup>

스피노자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sup>18)</sup> 그리고 그는 그러한 국가의 목적에 가장 근접한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본질상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며,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여전히 평등하다. 그에게

16) Seymour Feldman, "Introduction" in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trans. by Samuel Shirley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8), p. vii.

17) Steven B. Smith, Spinoza's Democratic Turn: Chapter 16 of the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in *Review of Metaphysics* 48 (1994): 359쪽.

18) 50번째 편지에서 스피노자는 ‘국가가 자연 상태의 지속’이라는 점이 자신과 홉스의 차이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국가에 대한 스피노자와 홉스의 비교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Alexandre Matheron, "The Theoretical Function of Democracy in Spinoza and Hobbes" in Warren Montag and Ted Stolze (eds), *The New Spinoz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207-216쪽.

국가권력은 합리적으로 정돈된 자연권이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자유와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sup>19)</sup> 『신학정치론』의 이러한 내용은 학자들로 하여금 스피노자를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사상가로 인정하게 한다.<sup>20)</sup>

이러한 『신학정치론』은 『정치론』과 더불어 그가 의외로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저작이다. 『신학정치론』의 서문에서 스피노자는 이 책이 현실과 격리된 추상적인 철학 서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신학정치론』에서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 당시 네덜란드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인 “정치적·신학적 저작”이라는 점을 스피노자는 강조하고 있다.<sup>21)</sup>

정치철학적인 관점을 떠나 이 저서는 스피노자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인 1656년 유대교로부터의 파문에 대한 그의 뒤늦은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몇몇 학자들은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유대교에게 자신의 행동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러므로 『신학정치론』은 스피노자가 무엇 때문에 파문을 받았으며, 파문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저작이 되고 있다.

스피노자는 네덜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성서를 잘못 읽고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미신적 신앙과 편견에서 야기되고 있다

19) *TPT*, chap. 16.

20) 마라는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스피노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erald M. Mara, "Liberal Politics and Moral Excellence in Spinoza's Political Philosophy",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0 (1982): 129쪽.

21) *TPT*, Pref.

22) Seymour Feldman, *op. cit.* pp. vii-viii.

고 보았다. 그 당시 개신교를 신봉하던 네덜란드인들은 국가와 종교가 연합하여 시민들의 삶을 통치해야 한다는 정치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론의 근원지는 바로 성서였다. 칼빈(John Calvin)을 추종하는 많은 네덜란드인들에게 있어서 모세(Moses)가 지도자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형태는 국가와 종교가 연합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모델이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유해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정당한 정치적 목표가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고, 논리와 사실들에 기반을 둔 논증들에 의해서 지식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간섭은 네덜란드 사회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간섭은 성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생긴 미신적인 신앙이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술한 책이 바로 『신학정치론』이다.

『신학정치론』에서의 스피노자의 토론들은 두 가지 방법론적 원칙을 소개한다. 첫 번째, 그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성서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그는 성서에 쓰인 그대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도구인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성서를 읽을 때 이성을 신학적인 교리와 원칙들의 하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피노자는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는 중세의 학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고 독립된 분야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 IV. 정치체제

『신학정치론』에서 논의되지 않은 국가나 정치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는 『정치론』에서 찾을 수 있다. 스피노자는 먼저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욕구가 국가 상태를 이루게 하였고,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자유와 더불어 생활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한다.<sup>23)</sup> 그래서 그는 『정치론』에서 국가가 전제정치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철저히 보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근본과제로 삼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국민의 안전과 자유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는 국가권력을 잡은 사람의 수에 따라 군주국가, 귀족국가, 민주국가의 형식이 생겨난다고 말하고,<sup>24)</sup> 『정치론』의 대부분을 이 세 형식의 국가들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 1. 군주제

스피노자는 혁명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형태의 국가라 하더라도, 기존의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sup>25)</sup>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제도와 조직들을 제안하면서 각각의

23) *PT*, chap. 1, par. 6 / chap. 5, par. 2.

24) *PT*, chap. 2, par. 16 / chap. 3, par. 1.

25) 혁명이나 반역에 대한 스피노자의 불신은 『신학정치론』 16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면, 개인은 국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지거나, 반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Frederick Pollock, *Spinoza: His Life and Philosophy* (London: Duckworth, 1899), 295쪽.

체제 내에서 최상의 형태를 추구하고자 한다.

몇몇 해석자들은 스피노자가 『정치론』에서 전제국가를 변호했다고 비판한다.<sup>26)</sup> 그들은 스피노자가 군주제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군주제를 옹호해서가 아니다. 그는 군주제뿐만이 아니라, 귀족제, 민주제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각각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스피노자는 국가가 전제정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군주제를 잘못된 형태의 군주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정치론』의 많은 문장들과 격언들은 위의 비판을 강하게 부정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부여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sup>27)</sup>. 또는 ‘한 왕국의 공명정대한 기밀이 적군들에게 폭로되는 것이 전제군주의 부도덕한 비밀이 시민들에게 감추어지는 것 보다 낫다’<sup>28)</sup> 등이다.

스피노자는 절대군주제를 주창하는 네덜란드의 왕정세력에 대해 절대군주제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는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난 짐을 지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을 절대군주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하면서, 절대 군주제가 불가피하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 군주가 절대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군주제는 제대로 존립될 수 없으며, 절대군주제라고 알려진 국가는 그 실상을 보면 귀족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절대 군주제를 스피노자는 가장 최악의 국가형태로 간주한다. 절대 군주제에서 군주는 그의 조언자들 즉 자신들의 욕망과 이해관계 때문에 군주를 기쁘게 하려는 귀족들에 의해서 자주 조정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26) 폴록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Ibid.*, p. 292.

27) *Ibid.*

28) *Ibid.*

29) *PT*, chap. 6, par. 5.

이것은 절대군주제 안에 귀족제가 은폐되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단점이다. 절대군주제의 또 다른 단점은 군주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군주의 압제는 역효과를 낼 것이고, 중국에는 군주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스피노자는 보고 있다.<sup>30)</sup>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주제는 입헌군주제이다. 절대군주제에 대한 위의 분석을 통해 절대군주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는 군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의 설립에 대해 언급한다.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주제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제를 제정하기 위해 그가 제안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의회의 설립이다. 의원의 구성원들은 나라의 모든 문종과 계급에서 각각 선출되어야 하며, 반드시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기간의 임기를 지낸다. 또한 의회는 여론을 잘 수렴하며, 의원들의 업무와 관심은 평화의 보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회는 적어도 1년에 4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나라의 기본적인 법률들을 보호하고, 왕에게 국가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왕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의회의 다수 의견이 평민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게끔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의회의 의견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sup>31)</sup>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회의 기능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바람직한 군주제의 두 번째 요건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

30) *PT*, chap. 6, pars. 6-7.

31) *PT*, chap. 6, pars. 15-30.

이다. 논과 밭 등을 비롯해 국가의 전 영토를 국가 즉 통치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는 도시 거주민들과 농부들에게 매년 세를 받으면서 그 땅들을 임대해 주어야 한다. 이 토지 임대세를 제외하고는 평화시에는 다른 모든 종류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스피노자는 군주제에서 토지의 개인 소유권의 파괴를 제안했다. 땅과 그 땅에 붙어 있는 건물들은 모두 국가의 공동 소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토지의 국유화와 단일 세금화라는 극단적인 제안을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 내놓았다.<sup>32)</sup>

이렇게 땅을 소유하는 계급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땅을 더 많이 가질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계급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계급이 없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 간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교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가장 확실하게 평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 즉 국민의 대다수 의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쟁에 반대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sup>33)</sup> 이처럼 스피노자는 토지의 국유화가 국민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를 평화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의회의 설립과 더불어 토지의 국유화는 바람직한 군주제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세 번째로 스피노자는 군주제에서 용병 군인들의 극단적인 위협을 경고하면서 시민들의 의용군을 옹호한다. 군주가 직접 지휘하는 전문적인 군대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용병제는 군주제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용군은 오직 필요할 때에만 싸우고, 시

32) *PT*, chap. 6, par. 12.

33) *PT*, chap. 7, par. 8 / par. 19.

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보호책일 뿐이다. 더욱이 누구도 의용군에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평등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sup>34)</sup>

이처럼 군주의 힘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만 보존될 때, 그 군주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게 자유를 보유했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군주제이다.

## 2. 귀족제

위에서 살펴본 군주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은 제대로 입헌된 군주제만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스피노자는 군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서를 두는 반면, 귀족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는 어떤 국가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국가의 제도는 귀족제일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귀족제는 통치권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특정한 사람들, 즉 귀족들에 의해서 점유되는 정부의 형태이다.<sup>35)</sup> 귀족제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에서 군주제와는 다르고, 선출하는 방법에서 민주제와 다르다. 귀족제는 귀족들만이 특별히 선출되지만, 민주제에서는 어떤 약정된 조건들에 부합되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출의 대상이 된다. 스피노자는 귀족제가 군주제로 타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여러 과별로 분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귀족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6)</sup>

34) *PT*, chap. 7, par. 12 / par. 17.

35) *PT*, chap. 8, par. 1.

36) *PT*, chap. 8, par. 1.

스피노자는 군주제와 비교해서 귀족제가 가지는 장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귀족제는 다수에 의해서 통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주제와는 달리 의원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최고 통치자인 군주가 사망하더라도 최고 통치권을 가진 의회는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귀족제는 군주제와는 달리 주기적인 격변을 겪지 않는다. 셋째, 군주가 어리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또 다른 이유로 군주의 권력이 자주 묵인되는 반면, 의회의 권력은 항상 불변한다. 넷째, 군주제에서 모든 법은 선포된 군주의 의지라고 하더라도 군주의 모든 의지가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귀족제에서 선포된 의회의 의지는 모든 경우에 필연적으로 법이 될 것이다.<sup>37)</sup> 이처럼 귀족제는 통치권의 의지와 법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기는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수가 다스리는 귀족제에서 통치권의 힘은 이론적으로 군주제에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귀족제는 군중들이 자주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는 등 군중으로부터 나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족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중들의 정치참여 등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야 할 것이다.<sup>38)</sup> 물론 이것은 귀족제의 독재정치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중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가 사실상 독재정부라고 하더라도 통치권을 가진 의회는 엄청난 수(인구의 2퍼센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있을 수가 없으며, 서로간의 합의와 이성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귀족제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성공적인 귀

37) *PT*, chap. 8, par. 3.

38) *PT*, chap. 8, par. 5.

족제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주제에서 제안되었던 제도들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체제에서 어떤 제도와 조직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군주제에서 적당한 것들이 반드시 귀족제에서도 적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체제가 바뀌면 제도들과 조직기구들이 바뀌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지적하듯이 네덜란드 공화국이 파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공화국이 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조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스피노자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귀족제에서 본질적인 것은 귀족들로 구성된 최고 의회가 가장 강한 힘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의원들의 수는 인구의 2퍼센트이고, 이 의회는 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항상 정해진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sup>39)</sup> 이 의회의 기능은 법을 통과시키고 폐지시키는 것과 의원들 및 국가의 장관들을 선출하는 것이다.<sup>40)</sup>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귀족의회 즉 최고의회에 보조적인 단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최고 의회 아래에 있는 보조단체는 최고의회 조직이 보존되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쓰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평의원이라고 불렸으며, 사실상 의회의 감시인이었다. 이러한 귀족을 스피노자는 호법관(Syndicus)이라고 부른다.<sup>41)</sup> 그 외에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조직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상원과 사법재판관이다.<sup>42)</sup>

최고 의회 아래에 있는 상원의 주요과제는 방위시설과 군사위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라의 군대 운영에 관련되어

39) *PT*, chap. 8, par. 2 / par. 13.

40) *PT*, chap. 8, par. 17.

41) *PT*, chap. 8, par. 20. 호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즉 호법관의 수효, 임기, 구체적인 임무, 회의 소집 등에 관해서는 8장 21-28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42) *PT*, chap. 8, par. 29 / par. 37.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로부터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상원 의원의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뇌물에 쉽게 매수되지 않을 만큼 많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상원의 구성 체계는 4개 또는 6개의 부서로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각 부서가 2-3개월씩 교대로 최고 의석을 차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sup>43)</sup> 이는 뇌물 수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스피노자의 특유한 방식인 듯하다.

한편 사법관은 공명정대한 그리고 뇌물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sup>44)</sup> 그들의 임무는 귀족들이든 평민이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일이다. 이 경우 귀족, 호법관, 상원의원 모두 법 앞에서는 평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법치주의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재판관이 담당하지 않고, 최고회의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재판관의 수는 상원의원의 경우처럼 명확한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을 만큼 수효가 많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판관의 임기에 대해 스피노자는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일부가 해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이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sup>45)</sup>

43) *PT*, chap. 8, pars. 34-35.

44) *PT*, chap. 8, par. 29 / par. 37. 상원은 원로원(*Senatus*)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45) *PT*, chap. 8, pars. 38-39.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재판관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민사사건의 경우 패소자측으로부터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받아들이고,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 몰수된 재산이나 벌금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후자의 경우 재판관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고문으로써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스피노자는 강조한다(*PT*, chap. 8, par. 41). 한편 재판관을 구성할 때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PT*, chap. 8, par. 39).

통치권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귀족제는 군주제와 다르다. 스피노자는 군주제에서 용병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했지만 귀족제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군주제에서 스피노자가 용병제에 반대했던 이유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 용병 등을 빌려서 전문적인 군대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귀족제 정부는 절대 권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귀족제 하에서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싸워서 지켜야 할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국민들이 군인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주제에서는 의용군을, 귀족제에서는 용병군이 적절하다.<sup>46)</sup>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마저 없다면 정부에 완전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도 별 흥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즉 사유재산의 인정은 정부를 지지하도록 국민들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것이다.<sup>47)</sup> 이처럼 스피노자는 군주제와 귀족제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제도와 조직들을 제안하면서 각각의 체제에서 최상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 3. 민주제

민주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는 귀족제와의 차이점을 다루는 것으로 진행된다. 민주제는 의회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에서 귀족제와 다르다. 귀족제에서는 귀족과 평민 모두 선거권은 가지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귀족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제에서는 모든 사람, 즉 독립적이

46) *PT*, chap. 8, par. 9.

47) *PT*, chap. 8, par. 10. 스피노자는 8장 42-45절에서는 귀족제에서의 도시나 지방 총독, 의회 서기관, 재정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8장 46-48절에서는 종교에 관해서,<sup>49</sup> 절에서는 대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고 정직하게 사는 모든 시민들이<sup>48)</sup> 선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회에서 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민주국가를 제3의 국가인 ‘완전한 절대 통치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국가에서는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하인도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은 남편에게 그리고 하인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민주제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인 능력이나 물리적 힘에서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정치론』은 여기서 미완성인 채 끝난다.<sup>50)</sup>

여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태도는 덜 “자유로운” 정치사상을 가진 홉스의 태도와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여성들의 물리적 힘의 불균형이 남성과의 평등권을 그렇게 많이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홉스는 이 논의를 하면서 남자에 대해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아마존 여자들을 예로 든다. 한편 스피노자는 남성이 여성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평등주의자들의 논의에 긍정적으로 숙고하는 듯하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여성의 지적인 열등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고, 『윤리학』에서는 여성에 대한 그의 부정적 언급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그의 시대에 앞섰다고 볼 수는 없다.

스피노자가 사실상 선호한 것은 민주제였다. 이상적인 군주제가 많은

48)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국민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또는 국토 안에서 탄생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이 주어져야 할 사람 중에서 범죄나 공권 상실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포함된다(*PT*, chap. 11, par. 1).

49) *PT*, chap. 11, pars. 3-4.

50) 스피노자는 『정치론』에서 군주제에 대해 총 2장에 걸쳐 71절을 할애하고 있고, 귀족제에 대해 총 3장에 걸쳐 74절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민주제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은 4절뿐이다.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생각에서도 민주정치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는 비록 귀족제가 이론적으로 최상의 제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귀족제에서는 사실상 귀족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그들의 열정이나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바람직한 민주제의 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와 조직에 대해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sup>51)</sup>

앞에서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16장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지키는 데 국가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에 가장 근접한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자신이 일부가 되는 공동체 전체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여전히 평등하다.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한 국가 내에서 자연이 부여한 자유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제는 그에게 정부의 가장 자연적인 형태이고, 국가의 최상의 형태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51) 바디스티는 군주제와 귀족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민주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Guiseppe S. Battisti, "Democracy in Spinoza's Unfinished *Tractatus Politicus*"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8 (1997): 623쪽.

## V. 맺는 말

프랑스 철학계에서는 1960년대부터 알튀세르, 들뢰즈, 바디우, 발리바르, 네그리 등의 학자들이 스피노자를 연구함으로써 스피노자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들 대부분은 좌파 성향의 학자들로서 형이상학보다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그리의 『야만적 별종』, 발리바르의 『스피노자와 정치』 등은 정치철학에 주목한 대표적 저작들이다. 마슈레는 『헤겔 또는 스피노자』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유물론으로 해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한다. 스피노자가 17세기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슈레는 오히려 19세기 헤겔 철학이 더 발전하면 나타날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스피노자 철학이라고 역설한다. 마슈레는 자신이 재구성한 스피노자를 헤겔 철학의 출발점이 아닌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세운다. 알튀세르, 네그리, 발리바르 역시 스피노자 철학을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한다. 스피노자 르네상스는 그의 정치철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서 활성화되었다. 철학적 이방인 또는 야만적 별종으로 불리는 17세기 스피노자 철학이 현대 학자들에 의해 실천적, 정치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 현재의 철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슈레는 이를 ‘정치적 스피노자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에서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신학 정치론』과 『정치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주장들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국가의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지키는 데 있으며, 그것에 가장 근접한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민주국가에서는 본질상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며,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로 모든 인간이 여전히 평등하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자유와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그에게 국가권력은 합리적으로 정돈된 자연권이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우리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스피노자의 현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스피노자와 관련지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용어들은 합리론, 범신론, 실체일원론, 코나투스, 정념, 자유인, 지복 등 형이상학과 윤리학적 개념들이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의 스피노자 연구가 그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학』 못지않게 『신학정치론』과 『정치론』도 철학의 선조들과 동시대 철학자들의 사상이 대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축되어 있는 책일 뿐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의 정치론과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사상적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윤리학』에 집중된 관심을 『신학정치론』과 『정치론』으로 확대시키는 데 본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K C I

## 참고문헌

### <I. 1차 문헌>

- Spinoza, Baruch. *The Chief Works of Benedict de Spinoza*. 2 vols. Translated by R. H. M. Elwes. London: Chiswick Press, 1883.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Vol. 1. Edited and translated by Edwin Curl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Spinoza Complete Works*. Edited and translated by Samuel Shirley.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 \_\_\_\_\_, *Ethics*. Translated by James Gutmann. New York and London: Hafner Press, 1949.
- \_\_\_\_\_, *A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A Political Treatise*. Edited and translated by R. H. M. Elw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1.
- \_\_\_\_\_, *Spinoza Opera*. 4 vols. Edited by Carl Gebhardt. Heidelberg: Carl Winter, 1925.

### <II. 2차 문헌>

- 강영안, 『자연과 자유 사이』 서울 : 문예출판사, 2001.
- 박삼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 선학사, 2002.
- 안토니오 네그리, 『야만중 별중』 윤수중 역. 서울 : 푸른숲, 1997.
-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5.
- 피에르 마슈레, 『헤겔 또는 스피노자』 진태원 역. 서울 : 이제이북스, 2004.
- Allison, Henry E. *Benedict de Spinoza: An Introduc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7.
- Battisti, Guiseppa S. "Democracy in Spinoza's Unfinished *Tractatus Politicus*."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8 (1997): 623-634.
- Feldman, Seymour. "Introduction." in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trans. by Samuel Shirley.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8.
- Mara, Gerald M. "Liberal Politics and Moral Excellence in Spinoza's Political

- Philosophy."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0 (1982): 129-150.
- Matheron, Alexandre. "The Theoretical Function of Democracy in Spinoza and Hobbes." in Warren Montag and Ted Stolze (eds), *The New Spinoz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207-216.
- Pollock, Frederick. *Spinoza: His Life and Philosophy* London: Duckworth, 1899.
- Scruton, Roger. *Spinoza*.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Smith, Steven B. "Spinoza's Democratic Turn: Chapter 16 of the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in *Review of Metaphysics* 48 (1994): 359-388.

K C I